

ARCHITECTURE TRAVEL



이중호 시원 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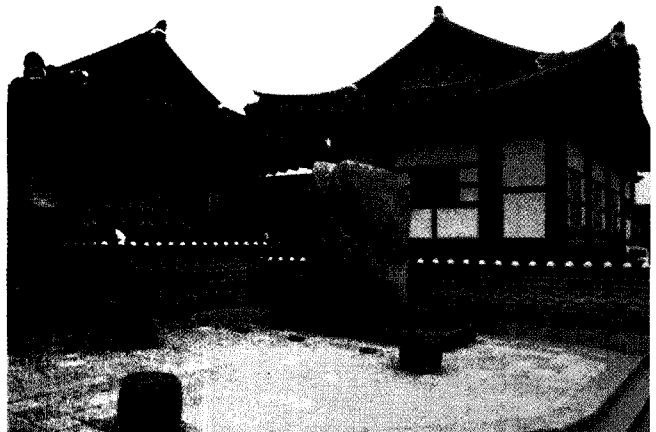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
· 농정권 홍보위원장

땅 끝에서 길을 찾다

Finding a road at the end of land

3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 (강북, 노원, 도봉, 성북) 건축탐방을 올 해는 전주 한옥 마을과 전남 해남지역으로 정하고 다녀왔다. 지역 건축사 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1박 2일(2011.5.27~5.28)의 일정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전주 한옥마을부터 돌아보았다. 전주는 나의 본향(全州李氏)이라 그런지 낯설지 않고 친근감이 드는 도시다. 전주 한옥마을은 인구 4,000여명과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어 한옥마을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을 비롯해 한지와 한지 공예, 판소리, 풍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본고장으로 작년에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다.



전주 한옥마을

마을길 바닥은 화강석을 전통마루 문양으로 깔아놓았고 처음 입장한 한옥체험학습장 건물인 세화당(世化堂)에도 기단석을 화강암으로 마무리 했는데 너무 정형적이고 매끄러워(기계로 자른 것) 자연스러운 맛이 없다. 그리고 몇몇 건물의 마당에 자갈을 깔아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전통방식이 아니고 일본식이다.

한지공예관과 전통술박물관에도 가보았다. 천년을 간다는 한지는 물질이 아닌 정신임을 '달빛 길어올리기'(2010)라는 영화(임권택 감독)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술은 느리게 익어갈수록 깊은 맛과 향기가 우리나라듯이 우리네 삶도 그러하리라. 전통 찻집에서 느긋하게 쌍화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느껴보았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해남으로 향했다.



세화당에서 단체사진

가는 길에 누렇게 익은 보리밭에선 보리 베기가 한창이다. 또한 남도 땅 특유의 황토 빛 들녘에서 생기가 넘친다. 해남으로 접어들어 우선 땅끝 해양 자연사박물관부터 둘러 보았다. 개인이 30년간 수집, 소장한 4만 여점의 희귀한 해양생물(패류, 산호, 어패류 등)과 육지생

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 목적지인 땅끝탑 전망대로 이동했다. 모노레일을 타러 가는 길에 팽나무 가로수의 기묘하고 멋진 자태에 반한 반면, 공사 중인 유치하고 볼품없는 건물에 실망했다. 관광지의 빼어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불쌍사나운 음식점, 모텔들이 적을 떨어뜨린다. 국내 대부분의 관광지가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집을 보면 주인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도시를 보면 시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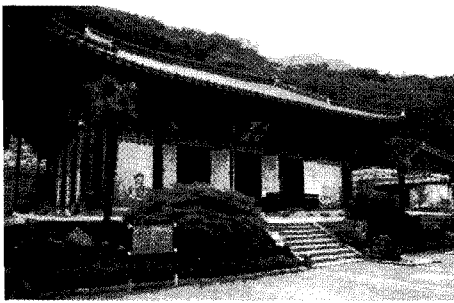
작년에 개인적으로 와 보았던 전망대라 처음보다 감흥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저녁 무렵 땀기 해변과 고갈섬 너머로 해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내려갈 때는 걸어서 갔는데 일부 돌계단이 좀 부당스럽기는 했지만 갈두산 숲길이 운치 있고 좋았다. 다 내려와서 보니 오른쪽으로 땅끝탑 가는 길이 있었다. 예전에 보길도 갈 때 와서 이른 아침 완도 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본 경험이 있다.

해변과 접한 갈두산의 사면을 따라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몇 차례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서야 땅끝 탑에 도달했다. 전과 달리 지금은 일몰을 보고 있자니 땅 끝에서 일출과 일몰을 다 보게 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타이타닉 뱃머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되돌아 내려갔다.

왔던 곳을 나서 와도 그 때마다 새롭고 느낌이 다른 것이 여행의 묘미다. 식당에서 싱싱한 회를 안주로 동료들과 함께 건배를 하고 저녁식사. 반중에 차로 이동하여 숙소인 두륜산 온천가족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서울과 달리 침묵 같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고 개구리 울음소리 요란하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대항사 탐방 길에 올랐다. 우리는 포장도로를 마다하고 산책로를 따라 흙길을 걸었다. 길 왼편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꽃과 나무의 향기가 온몸으로 퍼져온다.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 편백 등 다양한 나무들로 어우러진 숲길에서 불소리 새소리에 눈과 귀가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아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길이 아닐까?

일마 후 임주문을 통과하고 대항사 경내로 들어섰다. 다리 2개를 건너 절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 대웅보전 앞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명필 이광사 선생이 쓴 현판 글씨와 건축물을 감상하고 나와 1km 산 속으로 더 들어가 일지암을 보고 가기로 했다. 예전에 비해 길이 넓어지긴 했어도 호젓한 숲길이다. 긴 오르막이라 땀이 흐른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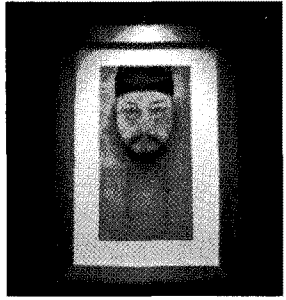


대항사 대웅보전

일지암에 가면 옛 초의선사(1786~1866)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최초로 다도(茶道)를 정립하시고 녹차의 인연으로 만난 추사 김정희와 고산 윤선도의 흔적도 배어있다. 초당 마루에 걸터앉아 연못의 연꽃을 보고 누마루에 올라 안산의 문필봉을 바라다보며 높고 깊은 뜻을 품었던 당대 최고 인

물들을 그려본다.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노닐고 주변 들엔 양귀비꽃과 머위나무이 자라고 있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내려오니 주차장에서 버스가 기다린다.

오전 11시경 대항사를 출발하여 다음 목적지인 윤선도 고택으로 갔다. 15분 만에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도착했다. 우선 유물전시관부터 관람을 했는데 한옥 건물 지하 전시관에 갖가지 진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쉽다. 해남윤씨의 시조인 어초은 윤희정과 윤선도 선생의 증손자인 윤두서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고 보았다. 특히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앞에서는 발길이 저절로 멈추고 그 형형한 눈빛에 매료되었다. 마치 나를 노려보며 세상을 똑바로, 깨끗하게 살라고 이르는 것만 같았다.



윤두서 초상화

윤선도 고택인 녹우당(사적 167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앞의 500년 된 은행나무(일명 학자수, 學者樹)가 먼저 눈길을 끈다. 고백을 둘러보던 중 안채에 거주하는 17대 종손 윤희식(78세) 할아버지가 지붕을 고치러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뒷산 명당 터에 자리 잡은 어초은 윤희정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둘러보았다.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숲이 자라고 입구 쪽엔 대나무 죽순이 자라고 있다.



지붕위의 종손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 바퀴 돌며 사당을 둘러보고 숲길을 따라 사랑채로 건너왔다. 녹우당 현판글씨는 윤두서의 친구 이서가 썼다고 한다. 건축물은 전면에 치마를 덧대어 내밀고 기둥을 세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나 좀 흉해 보였다. 아파트 받코니 확장인 셉이다. 앞뜰엔 붉은 모란꽃이 한창이고 갈마루에 노란 감꽃도 피었다. 별들이 영영거린다.

고산 유적지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볼거리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 때문에 다 둘러보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오면서 보니 주변의 드넓은 논밭이 모두 해남윤씨의 풍요로운 토지였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번 탐방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해남은 마치 불가의 윤희처럼 끝이 시작인 곳이다. 옥지 쪽에서 보면 땅 끝이지만 바다에서 보면 시작점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도 바닥,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버거워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세상을 직시하라 그래야 길이 열린다.'고 암시하는 듯 한 윤두서의 강렬한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